

대중과 소통하는 공연 문화의 장



광림아트센터는 교회와 세상을 문화로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문화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한계를 두지 않고 공연 문화 발전과 지역 사회의 문화공간으로 연간 600회 이상의 공연을 올리며 25만 명 이상의 관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기 위해 탄생한 BBCH홀은 Burning Bush Church(숨 속에 타는 불꽃교회)라는 이름에 담겨 있듯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BBCH홀 | 뮤지컬 공연 전용 극장 (1000석)



장천홀 | 클래식 음악 전용 극장 (600석)

광림아트센터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63길 33 광림사회봉사관 7층 광림아트센터 | 문의: 02-2056-5787

2023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 파워크리스찬 40주년 기념 정기공연

뮤지컬 THE 더 드리머 DREAMER

잇는 자들

2023. 4. 21(금) ~ 23(주일) 오후 7시 30분

광림사회봉사관 7층 BBCH 홀 3일간 무료공연

주관: 성극위원회 후원: 남선교회 총연합회 | 여선교회 총연합회 | 실업인선교회 | 장로회 | 광림아트센터



뮤지컬 THE DREAMER

더 드리머 ; 잇는 자들



시놉시스

드리머들은 그분과 사람들을 잇는 자들이다.

그분이 대상과 메시지를 알려주면, 삶에 지친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드리머들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드리머들은 그분으로부터 사람들이 어떤 말을 원하는지 더는 알려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는다. 설상가상 꿈으로 통하는 길마저 막혀 버린다.

결국 사회초년생 신입 드리머의 제안으로 꿈이 아닌 세상으로 직접 내려가기로 한 드리머들. 목소리가 필요했던 이들의 가족, 친구인 척 연기하며 메시지를 직접 지어내기 시작하는데...

과연 드리머들은 거짓말을 들이지 않고 잇는 자로서의 역할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을까?



위원장 박영준 장로 프로듀서 이강현 연출 김상일 극작 김성민 작곡 배지훈 안무 문영인 협력연출 채정민 음악감독 김강희
기술감독 박인수 무대디자이너 유하비 작화팀장 이은경 무대크루 박정호 리종민 이진규 조명디자이너 맹우영 조명크루 김유창 양재영

음향디자이너 신진찬 음향크루 강성모 김계원 김영래 영상감독 김도윤 유상균 의상디자이너 정유경 의상크루 김동훈 소품 문다선
배우 이자영 이은창 이준수 이소연 김이선 김정연 노희승 강예은 황희순 김태연 이재연 윤지현 황현정 김혜영 조성아 장혜민 위선미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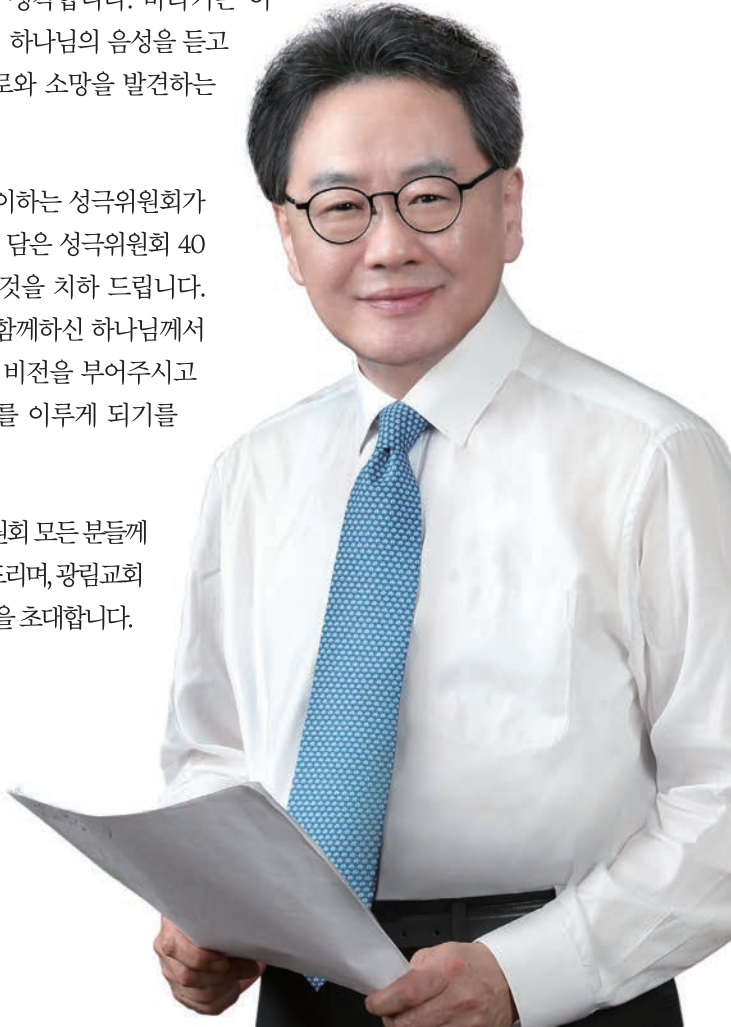
지난 3년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에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거리와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제단이 중단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그를 통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성극위원회가 뮤지컬 <더 드리머>를 공연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와 단절로 힘든 시간을 지나온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를 뮤지컬을 통해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뮤지컬을 관람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드리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이하는 성극위원회가 그동안 걸어온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성극위원회 40년사 카달로그를 발행하게 된 것을 치하 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성극위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더욱 크고 놀라운 비전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공연을 준비해 주신 성극위원회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성극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2023년 4월, 희망의 탑에서
담임목사 김정석 감독



성극위원회 소개

성극위원회는 1983년 광림교회 박관순 사모와 인천 학익교회 원로목사인 조중기 목사가 만든 연극부를 시작으로 오늘의 성극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파워크리스찬>이란 명칭은 1998년 10월 광림교회 창립 4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올린 창작 성극 <다윗을 올려라>에 동참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예수 문화를 창출하자>는 소망으로 시작된 이름입니다.

성극위원회는 연극이라는 몸짓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우들의 모임이며, 교회 내 많은 성도들과 소통하고 이 땅의 황폐한 문화를 하나님의 선한 문화로 승화시켜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극위원회는 BBCH아트센터와 연계, 광림교회만의 각본을 가지고 극을 올려 뉴욕의 프라미스교회와 같은 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파워크리스찬의 배우와 스태프로 활동하기를 원하며, 매 공연마다 성도들의 기도와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성극위원회 활동



2019년 빈방



2017년 언니 숙이



2015년 안녕하세요 예수님



2014년 고마워요 아빠



2013년 내일



2012년 첫사랑

2023년 더 드리머

2019년 빈방

2018년 늙은 도둑 이야기

2017년 언니 숙이

2016년 파락호

2015년 안녕하세요 예수님!

2014년 고마워요 아빠!

2013년 내일
17일간 특별한 동행

2012년 첫사랑

2011년 어느 여인의 증언
어느 버스 기사 이야기

2010년 Jesus goes to the Newyork city

2009년 고마워요 엄마

2008년 8월에 만난 아버지

2007년 그때, 그곳

2006년 소명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

2005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느 여인의 증언



2011년 어느 여인의 증언



2008년 8월에 만난 아버지



2002년 늙은 도둑의 이야기



1998년 땃을 올려라

2003년 늙은 도둑 이야기

2002년 어느 버스기사 이야기
현신

2001년 너는 반석이니라
빈방 있습니까?
어디 쓸만한 기도 없수?

2000년 요나꼬 이야기
빛

1999년 녹슨 세 개의 못
일산성전 등 지교회 순회공연

어느 여인의 증언
일산성전 등 지교회 순회공연

마흔의 고백
일산성전 등 지교회 순회공연

1998년 땃을 올려라

파워크리스찬 단원 모집

성극위원회에서 파워크리스찬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단원을 모집합니다.

분야: 연출·각색·무대·조명·음향·영상·의상·분장·배우

문의: 김상일 연출(원사) 010-2784-3775 | 이강현 PD(성도) 010-3190-6483
powerchristian1983@gmail.com

인스타그램 [instagram.com/powerchristian_official](https://www.instagram.com/powerchristian_official)

페이스북 www.facebook.com/Powerchrist

유튜브 [youtube.com/@powerchristian_official](https://www.youtube.com/@powerchristian_official)

스태프 <프로필>



성극위원장
박영준 장로



프로듀서
이강현



연출
김상일



극작가
김성민



작곡가
배지훈



안무가
문영인



협력연출
채정민



음악감독
김강희



기술감독
박인수



무대대자이너
유하비



작화팀장
이은경



무대크루
박정호



무대크루
라종민



무대크루
이진규



조명디자이너
맹우영



조명크루
김유창



조명크루
양재영



음향디자이너
신진찬



음향크루
강성모



음향크루
김계원



음향크루
김영래



영상감독
김도윤



영상감독
유상균



의상디자이너
정유경



의상크루
김동훈



소품
문다선

배우 <프로필>



신입
이자영



노인
이은창



남자
이준수



여자 1
이소연



여자 2
김이선



소녀
김정연



창식
노희승



동희
강예은



순자
황희순



부녀회장
김태연



부녀회 1
이재연



부녀회 2
윤지현



요원 1
황현정



요원 2
김혜영



요원 3
조성아



요원 4
장혜민



읽는자
위선미

더 드리머 뮤지컬 넘버

[넘버 01] 체크 더블체크 트리플체크-요원들

체크,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한 번 더 체크,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인생에 큰 선택 앞에 놓인 사람 외로움 속에서 기댈 곳을 찾는 사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사람. 이들의 인생을 바꿀 단 한 마디는 우리의 몫 자격요건은 오직 간절함 하나뿐.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오케이. 원 체크, 투 체크, 쓰리 체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체크. 체크,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오케이. 원 체크, 투 체크, 쓰리 체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체크. 체크,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오케이. 원 체크, 투 체크, 쓰리 체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체크. 체크,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오케이. 원 체크, 투 체크, 쓰리 체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체크. 체크,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넘버 02] 인생을 바꾼 한마디-창식

하아... 아 힘들어 나만 힘들어? 나만 피곤해? 그치? 너도 힘들지? 하아... 그래 나도 살아가는게 너무 힘이 들어 괜찮은 척 덤덤한 척 버티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네 미친듯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별레처럼 짓밟히는 건 시간 문제야. 포기하고 싶어. 다 때려치우고 싶어. 누군가 말해줬으면 해 잘하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내라는 그 한 마디를 내게 들려줘. 내 인생을 바꿔줄 한 마디를 찾아줘. 나는 지금 그게 필요해 언제쯤 이 힘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넘버 03] 한번 해보자-드리머들

언제부터일까? 내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불안감들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불안해하지만. 불안해하지만. 그래, 방법이 떠올랐어.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인간에게 힘을 줄 수 있어. 지금까지 그분에게 들어온 말이 몇 개인데, 오 몇 개인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우리는 또 할 수 있어 네게 힘을 줄게 지금까지 그분에게 들어온 말이 몇 개인데! 오 몇 개인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우리는 또 할 수 있어 네게 힘을 줄게. 언제부터일까? 내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불안함들이 언젠가는 이런날이 올 줄 알았어. 불안해 하지만 불안해 하지만. 그래 방법이 떠올랐어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인간에게 힘을 줄 수 있어. 지금까지 그분에게 들어온 말이 몇 개인데 오 몇 개인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우리는 또 할 수 있어. 네게 힘을 줄게. 지금까지 그분에게 들어온 말이 몇 개인데 오 몇 개인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우리는 또 할 수 있어 네게 힘을 줄게.

[넘버 04] 내가 진짜 궁금한 것은-동희

궁금하다는 것은 무슨 느낌일까? 사실은 재미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실 난 안 궁금해. 대신 나한테는 모른척 해야하는 순간이 있어. 그래서 궁금해야 해. 엄마가 아빠를 무시할 때 아빠가 엄마를 짜려볼 때, 할아버지가 눈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해. 그래야 싸움이 멈추니까. 나한테 관심이 쏠리니까. 싸움을 멈추기 위해 모른척 때를 써야 해. 행복을 되찾기 위해 나는 또 궁금해야 해. 그래야 싸움이 멈추니까. 나한테 관심이 쏠리니까. 싸움을 멈추기 위해 모른척 때를 써야해. 행복을 되찾기 위해 나는 또 궁금 해야해. 우리 가족만 이러는 걸까? 우리 가족은 정말 좋은 가족일까?

[넘버 05] 얼마나 아프실까?-부녀회장 (원작: 찬양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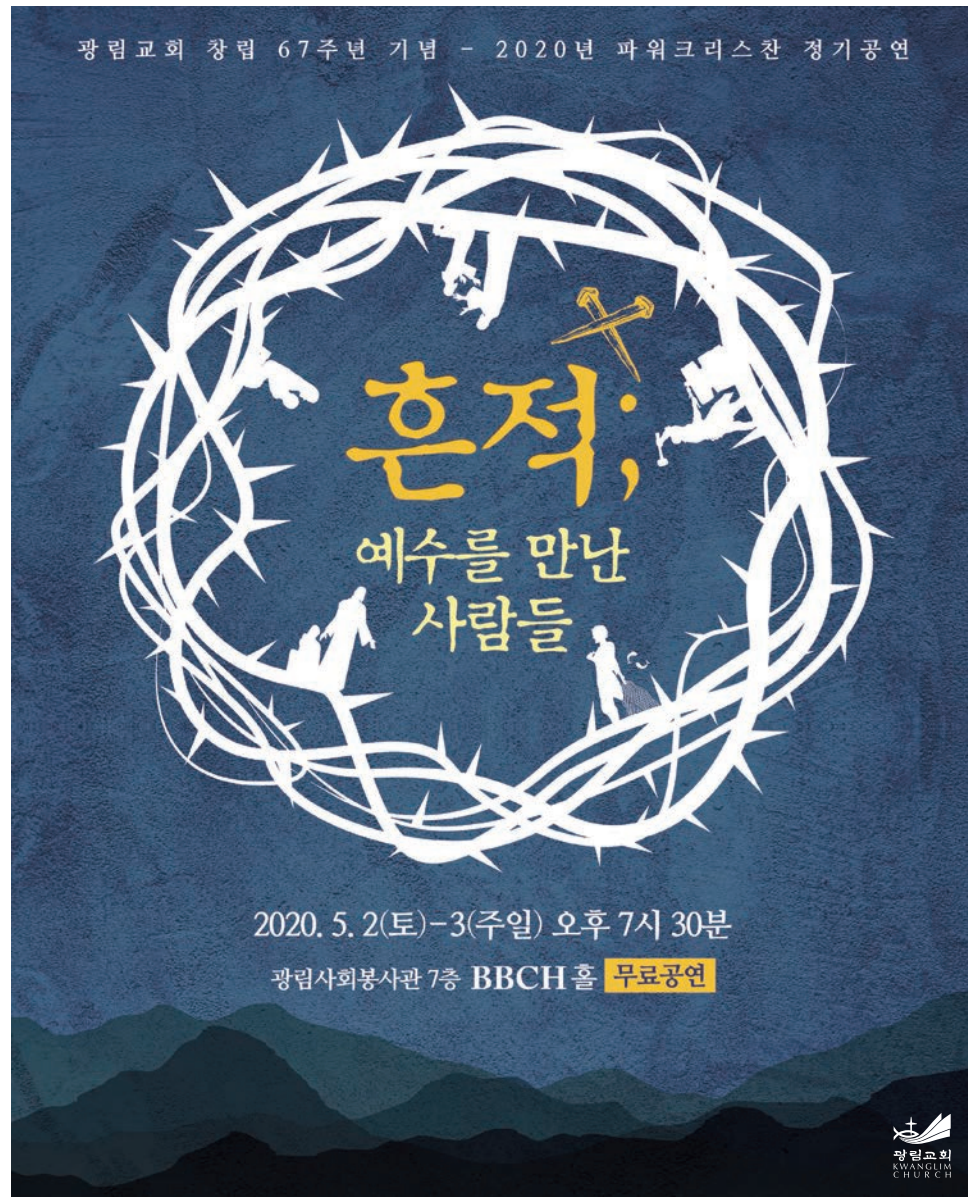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넘버 06] 살아가는 이유-신입

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너희 모두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내 맘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주된 여호와 하나님 내 맘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주된 여호와 하나님, 내 맘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주된 여호와 하나님, 당신 사랑 나도 알게 하소서. 나의 주된 여호와 하나님, 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너희 모두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넘버 07] 빛의 자녀 (원작: אליאנג)

어느 때나 어디서나 빛은 가리울 수 없네. 어두움이 더욱 어두울 때에 빛은 더욱 비추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빛은 가리울 수 없네. 어두움이 더욱 어두울 때에 빛은 더욱 비추리. 빛의 자녀로 행하리. 어둠을 밝히 비추리. 사람들 그 빛을 보고 주께 나아오게 되리. 빛의 자녀로 행하리. 어둠을 밝히 비추리. 사람들 그 빛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리. 주 우리 부르시네. 빛이 필요한 곳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나가리. 빛의 자녀로 행하리. 어둠을 밝히 비추리. 사람들 그 빛을 보고 주께 나아오게 되리. 빛의 자녀로 행하리. 어둠을 밝히 비추리. 사람들 그 빛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로 행하리. 어둠을 밝히 비추리. 사람들 그 빛을 보고 주께 나아오게 되리. 빛의 자녀로 행하리. 어둠을 밝히 비추리. 사람들 그 빛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본 공연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본 공연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늑은 도둑 이야기

헉...헉...헉...

한 도둑의 숨가쁜 소리가 어느 시골 교회에 숨어든다.

피 범벽이 된 도둑의 얼굴에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를 발견한 목사님. 그리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경찰들의 소리가 시골마을에 울린다. 그렇게 시골 목사님의 보호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도 권길동 사건은 미해결사건으로 남게 된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사건은 새정부의 정치적 쇼를 위해서 다시 파헤쳐지고 강력계 형사 서우직에게 임무가 떨어진다. 시골교회 목사로 위장하고 사는 대도 권길동을 잡아라!

비포장도로에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마을. 서울에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시는 날에 마을에 도착한 서우직은 스카프와 꽃분이의 마중을 맞으며 얼떨결에 은혜 교회의 새로 부임하는 전도사가 되어버린다. “이를 어찌지!” 당황한 서우직 형사, 하지만 이 길이 가장 빠른 수사의 길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도사 행세를 하게 되고 너무도 넉넉한 미소의 높은 목사님만이 서우직을 반긴다.

강력계의 큰 별 서우직은 대도 권길동을 잡기 위해 예리한 눈빛을 별빛처럼 반짝이는데, 과연 권길동은 어디로 간 것일까?



국내 최고의 뮤지컬 전용극장인
BBCH홀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2017년
파워크리스찬 정기공연

언니 숙이

하나님은 날 버릴 거면서 왜 만들었대...

2017. 6. 3(토)-4(주일) 오후 7시 30분
광림사회봉사관 7층 BBCH 홀 **무료공연**

주관 성극위원회 후원 남선교회 총연합회 | 여선교회 총연합회 | 실업인선교회 | 장로회 | 광림아트센터



2017년 언니 숙이

“하나님은 날 버릴 거면서 왜 만들었대...” 주인공 정숙의 대사 중 하나로 이 대사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내용이다. 이정숙이라는 여인의 삶과 그녀 고통으로 인해 겪는 가족 이야기.

시골 어느 마을, 지체 장애인으로 평생 놀림을 받으면서 살아온 정숙. 바보라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소녀같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정숙은 동네 깡패의 아이를 임신하지만 아이가 죽게 된다. 이런 정숙으로 인해 집안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로 부터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긴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며 평생을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애물단지가 된 정숙이를 가족들이 한달씩 돌아가며 맡으면서 오빠, 동생들이 자신들의 쌓였던 아픔과 설움을 털어 놓게 되는데.....

정숙은 가족들의 갈등으로 인해 재활원에 들어가게 되고 정숙은 재활원에서 봉사를 하면서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2016년 파락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종갓집과 전답 수십만 평을 모두 도박으로 거덜낸 김용환. 도박에 빠진 김용환은 가족들에게 매일 깊은 반성의 말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땅문서를 들고 투전 판으로 달려간다.

안동의 노름판이란 노름판에는 모조리 끼어있던 김용환은 초저녁부터 노름을 하다가 새벽녘이 되면 판돈을 모두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며 놀음의 길에서 헤매며 집안의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된다.

그것도 모자라 시집 간 무남독녀 외동딸의 결혼 자금은 물론 시댁에서 받은 돈마저 가로채 노름으로 탕진하면서 '파락호' 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다. 이처럼 주변의 갖은 손가락질 에도 불구하고 김용환의 놀음 사랑은 매일 깊어져만 가는데...

웨슬리 회심 기념 파워크리스천 정기공연

안녕하세요 예수님!

2015. 5. 23(토)-24(주일) 오후 7시 30분
광림사회봉사관 7층 BBCH 홀
주관 성극위원회

예수님!
엄마 아빠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성극위원회
KWANGLIM CHURCH
성극위원회



2015년 안녕하세요 예수님

할머니와 한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만수 이야기.

때는 2015년 6월 1일. 광림교회에 다니는 할머니는 곧 있으면 시작되는 만수기도회에 손녀를 데려가고자 만수기도회에 얹힌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

1951년 6월의 어느 날. 강원도 산골짜기 조그마한 마을의 공사 중인 교회에서 살고 있는 만수. 만수는 6.25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에게 버림 받은 소년이다. 그렇게 버림받은 만수는 다행히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해져 교회에서 살게 된다. 그런 만수에게는 어린시절부터 자신을 돌보아준 마을의 아주머니들이 계신다. 잠을 재워주는 자장 아주머니,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는 성경 아주머니, 맛있는 밥과 간식을 만들어 주시는 주방 아주머니, 즐겁고 신나는 노래를 불러 주시는 노래 아주머니, 쌀·감자·고구마 등 많은 것들을 키우시는 농부 아주머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 만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지적 장애.

하지만 만수는 여느 아이처럼 마을 이곳저곳을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만삭인 아주머니를 보게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감정으로 인해 만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된다. 그런 만수는 하나님께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자 만수는 엉엉 울며 다락방을 뛰쳐나간다.

하지만 그날은 비가 거세게 오던 날이었고, 울부짖으며 마을을 돌아다니던 만수는 병에 걸리게 되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슬퍼한다. 병에 걸려 누워 있는 만수는 슬퍼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고 동시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러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014년 고마워요 아빠

강원도 산골마을에 '강릉집'이라는 우동집이 있다. 이 집 주인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월 매출의 일정 부분을 교회에 헌금하는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다.

어느 크리스마스이브, 세 부녀가 들어와 우동을 한 그릇만 시켰다. 마음씨 좋은 부부는 형편이 좋지 않음을 눈치채고 밝게 인사하며 우동을 더 담아 주었다.

부부는 매해 오는 세 부녀를 기억하여 나중에는 그들이 앉던 자리를 예약석으로 비워놓고 기다리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해부터 세 부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부부는 매해 그 자리를 비우고 기다렸고, 그 예약석과 부녀들의 이야기로 인해 우동집은 더욱 유명해졌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크리스마스이브, 어느 때처럼 그 자리는 예약석으로 비워져 있고, 세 부녀가 우동집을 찾아오는데...



시놉시스

원리 원칙론자인 의사 '소희'. 하지만 자신의 원칙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다. 소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시골 시장 구석의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한 장애인 부부를 만나게 된다.

이 장애인 부부는 뇌가 두개골 밖으로 빠져나오는 무뇌증에 걸린 태아를 임신하게 되고, 소희는 유산할 것을 통보한다. 하지만 이 부부는 유산할 것을 거부하고 결국 아이를 낳게 되는데, 태아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 태아의 삶을 보면서 시장 사람들과 소희까지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의미가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시놉시스

도박꾼이며 주정뱅이이자, 해수병 환자인 전과 5범의 강털보(강익수)는 교도소에서 출감 후, 노동관에서 막일을 하다가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

그의 친구들인 술꾼 주씨와 허씨는 노름판으로 그를 유혹하고, 집에 들어온 강털보는 아내가 시장 좌판에서 생선장사로 어렵게 벌어 딸 혜옥의 대학입학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을 빼앗아 노름판으로 간다.

전문 사기 도박꾼들에게 속아 돈을 탕진한 강털보는 화병으로 쓰러진다.

남편의 쓰러짐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자 교회 목사가 심방을 오게 되고, 목사와의 대화 끝에 목사를 폭행한다. 하지만 강털보는 목사가 놓고 간 전도지를 무심코 읽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시놉시스

벤하단은 사형수가 생길 때마다 처형에 사용할 못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간 벤하단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광경을 목격한다. 간음한 여인에게 “죽여라~”를 외치며 막 돌을 던지려는 순간, 벤하단은 청년 예수의 한마디를 듣게 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손에 힘이 빠진 벤하단은 자기도 모르게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도망치다 청년 예수와 눈이 마주친다. 벤하단은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열기를 느끼게 된다.

얼마 후, 갑자기 찾아와서 사형수가 한 명 늘었다며 빨리 세 개의 못을 구해달라는 로마 병사에게 내일까지 만들어가겠다고 한다. 병사는 사형집행이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그치자 벤하단은 오래전에 로마 총독부에 납품하려고 견본으로 만들어 두었던 세 개의 못을 찾아다 준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구경하러 간 벤하단은 충격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매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청년 예수였던 것. 피 흘리며 죽어가는 청년 예수를 바라본 벤하단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시놉시스

한적한 한 시골의 마을. 마을과 읍내를 오가는 시골버스 어느 날처럼 한적하고 조용히 승객을 태우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다.

이 상황에 버스기사는 핸들을 이리저리 옮기며 버스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러던 중 버스 앞에 한 아이가 나타나고 승객들은 모두 혼란에 빠진다. 아이를 치게 되면 자신들이 살지만 피하면 모두 골짜기로 떨어져 죽기 때문이다. 버스기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버스기사는 아이 대신 승객을 선택하게 되고, 버스가 멈춘 뒤 승객들을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며 버스기사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당신은 살인자’ 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아이는 바로 버스기사의 아들이었던 것.



시놉시스

자신도 죄인이지만 자신을 정죄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느냐’며 증오의 눈길을 보내는 간음한 여인. 자신도 처음에는 간음이 죄임을 인지했지만 점점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했지만, 어느 순간 간음이라는 죄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느덧 군중들의 손에 이끌려 광장 중앙에 쓰러진 간음한 여인. 이때 바리새인들이 청년 예수를 향해 어떤 벌을 내리겠냐며 재촉하는 소리를 들은 간음한 여인은 ‘이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겠구나’라고 체념하는 순간. 청년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려 쳐라’는 말에 모든 군중이 사라져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청년 예수도 간음한 여인에게 자신도 정죄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말을 듣고 죽음에서 탈출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간음의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시놉시스

뉴욕의 뒷 골목의 허름한 재즈카페. 카페의 여종업인 멜라니와 마피아인 부르스는 연인 사이다. 하지만 부르스는 부하의 배신으로 3년간 감옥에 가게 되고 멜라니는 부르스의 건달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3년 후 부르스는 감옥에서 출옥하게 되고, 부르스는 자신을 배신한 부하 제법을 간단히 제압하고 다시 보스 자리에 오르게 된다.

감옥에서 출옥하고 다시 보스 자리에 오른 부르스, 하지만 멜라니는 부르스의 출옥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데... 잘생기고 반듯한 전도사가 이 뒷골목에 교회를 세우겠다며 카페에 들어온다.

부르스와는 떠난 전도사에게 멜라니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멜라니, 부르스, 전도사 이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된다.

2009년 고마워요 엄마



시놉시스

강원도 산골마을에 '강릉집'이라는 우동집이 있었는데, 이 집 주인들은 매년 크리스마스때 월 매출의 일정 부분을 교회에 헌금하는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세 모자가 와 우동을 한 그릇만 시켰다. 마음씨 좋은 부부는 형편이 좋지 않음을 눈치채고 밝게 인사하며 우동을 더 담아 주었다.

매해 오는 그 모자를 기억하고 나중에는 그 모자가 앉던 자리를 예약석이라며 비워놓고 기다리지만 모자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는 매해 그 자리를 비우고 기다렸고, 그 예약석과 이 모자들의 이야기로 인해 그 우동집은 유명해졌다.

그리고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 어느때처럼 그 자리는 예약석으로 비워져 있었고 그 모자가 다시 우동집을 찾아왔는데...

2008년 8월에 만난 아버지



시놉시스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체인 아버지와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 자신의 일을 찾아 애쓰는 딸.. 그러나 가족 서로의 이해관계는 어지럽게 얽혀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입원한 병실에서 간호사와 그의 남동생을 만나게 된다. 이 특별한 가족과의 만남은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검사 결과 아버지의 몸에 큰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얼마 주어지지 않은 시간을 통해 가족간의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2007년 그때, 그곳

시놉시스

이재인은 어느 조그만 일간 신문의 기자로, 자기의 직업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악착같이 살아가는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이 깨내는 사실들을 정확히 보도하고 분석하는 일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이루고,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허전함과 회의를 느끼던 중, 시력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낸 ‘윤선희’라는 여성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맡게 된다.

이재인 기자는 선희와의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혼란을 겪고, 그 가운데 어머니의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어머니의 위독한 소식과 함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2006년 소명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

시놉시스

손양원牧사는 1939년 애양원 전도사로 부임한 이후로 평생 동안 애양원의 목회자로 섬기며, 문둥병자의 환부에 입을 접촉하여 병든 환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등 애양원 사람들을 사랑 했다. 30년 일제치하 속에서 신사참배 등의 강요로 핍박을 받던 손양원 목사에게 해방이라는 기쁨과 함께 분단이라는 슬픔도 함께 찾아온다.

광복을 맞이한 후 그의 두 아들이 순천여수반란 사건 때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10가지의 감사기도를 하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회개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는데...

2005년 어느 여인의 증언

시놉시스

자신도 죄인이지만 자신을 정죄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판단할 수 있냐’라며 증오의 눈길을 보내는 간음한 여인. 자신도 처음에는 간음이 죄임을 인지했지만 점점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웠지만 어느 순간 간음이라는 죄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느덧 군중들의 손에 이끌려 광장 중앙에 쓰러진 간음한 여인. 이때 바리새인들이 청년 예수를 향해 어떤 벌을 내리겠냐며 재촉하는 소리를 들은 간음한 여인은 ‘이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겠구나!’라고 체념하는 순간. 청년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려 쳐라’는 말에 모든 군중이 사라져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청년 예수도 간음한 여인에게 자신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말을 듣고 죽음에서 탈출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간음의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2005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시놉시스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자요, 아이들의 훌륭한 아버지요, 애정을 가진 남편이요, 연약을 육신을 입은 주기철 목사님을 그린 연극. 인간의 애절함과 연약함을 지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묵묵히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간 하나님의 종,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 명령에 겸손히 순종한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주기철 목사.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수용하며 무너지는 역사의 거대한 파도 가운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분으로 그의 모습을 그린 연극이다.

주기철 목사님을 본 교인들과 가족들은 영적 지도자를 빼앗긴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헌신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목사님 가신 길을 따르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2003년 늙은 도둑 이야기

시놉시스

헉...헉...헉... 한 도둑의 숨가쁜 소리가 어느 시골 교회에 숨어든다. 피범벅이 된 도둑의 얼굴에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를 발견한 목사님. 그리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경찰들의 소리가 시골마을에 울린다. 그렇게 시골 목사님의 보호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도 권길동 사건은 미해결사건으로 남게 된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사건은 새정부의 정치적 쇼를 위해서 다시 파헤쳐지고 강력계 형사 서우직 에게 임무가 떨어진다. 시골교회 목사로 위장하고 사는 대도 권길동을 잡아라!!!!

비포장도로에 교회종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마을. 서울에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시는 날에 마을에 도착한 서우직은 스키프와 꽃병이의 마중을 맞으며 얼떨결에 은혜 교회의 새로 부임하는 전도사가 되어버린다. “이를 어찌지!!!” 당황한 서우직 형사, 하지만 이 길이 가장 빠른 수사의 길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도사 행세를 하게 되고 너무도 넉넉한 미소의 늙은 목사님만이 서우직을 반긴다.

강력계의 큰 별 서우직은 대도 권길동을 잡기 위해 예리한 눈빛을 별빛처럼 반짝이는데 과연 권길동은 어디로 간 것일까?

2002년 어느 버스기사 이야기

시놉시스

한적한 한 시골의 마을. 마을과 읍내를 오가는 시골 버스. 어느 날처럼 한적하고 조용히 승객을 태우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다. 이 상황에 버스기사는 핸들을 이리 저리 옮기며 버스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러던 중 버스 앞에 한 아이가 나타나고 승객들은 모두 혼란에 빠진다. 아이를 치게 되면 자신들이 살지만 피하면 모두 골짜기로 떨어져 죽기 때문이다.

버스기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버스기사는 아이 대신 승객을 선택하게 되고 버스가 멈춘 뒤 승객들을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며 버스기사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당신은 살인자’ 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아이는 바로 버스기사의 아들이었던 것.

2002년 헌신

시놉시스

혼란의 시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서로간의 불신으로 인해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앉아서 이들간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갖은 이야기와 사건이 터지고 서로 힘을 합쳐 공동체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건물을 만들게 된다.

처음에는 서로의 보금자리를 꿈꾸며 건물을 만들어 나가지만 외부적인 요인을 비롯해 내부적으로 갈등이 터지면서 공동체 만들기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서서 희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이 공동체에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지...

2001년 어디 쓸만한 기도 없수?

시놉시스

세상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천사.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에게 전달해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천사.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보여지기 위한 기도 뿐으로 하나님에게 전달할 쓸만한 기도가 없어 고민하게 된다.

계속해서 진정한 기도를 찾기 위한 천사의 고군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소녀의 방에서 뜻밖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된다.

이 소녀의 기로를 통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와 하나님이란 것을 기도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임을 깨닫게 된다.

2001년 빈방 있습니까?

시놉시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공연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 고등부 연극반에서 연출 교사는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진아 덕구에게 조연급인 여관주인역을 맡긴다. 모든 면에서 소외되던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체험케 해주려는 교사의 선한 의도는 진통을 겪어가면서 결실을 향해 열매가 맺어가고, 덕구는 눈물겨운 연습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간다.

덕구가 연극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싫어하던 다른 학생들도 덕구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어가고 마침내 12월 24일 공연 당일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 앞에서 연극은 매끄럽게 진행된다.

그러나 문제의 여관 장면에서 이르자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보자 덕구는 극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갈등을 겪다가 끝내 울음을 터트리고 연극은 중단되는데...

덕구로 인해서 공연은 망쳤지만 덕구의 순수한 마음은 크리스마스 이브 하얀 눈을 녹이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 준다.

2001년 너는 반석이나라

시놉시스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 어부 베드로. 예수의 말씀에 감동받아 인생을 예수에게 바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를 철저히 따랐던 베드로. 어느 날 예수를 따라 물위를 걷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의 신임을 받게 된다.

특히 열병으로 고통을 받는 장모까지 예수가 치유함을 주자 세상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로마 병사에게 끌려 가는 예수를 보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하면서 쫓기듯 다시 갈릴리로 오게 된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1999년 녹슨 세 개의 못

일산성전 등 지교회 순회공연

시놉시스

벤허단은 사형수가 생길 때마다 처형에 사용할 못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간 벤허단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광경을 목격한다. 간음한 여인에게 “죽여라~”를 외치며 막 돌을 던지려는 순간, 벤허단은 청년 예수의 한마디를 듣게 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손에 힘이 빠진 벤허단은 자기도 모르게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도망치다 청년 예수와 눈이 마주친다. 벤허단은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열기를 느끼게 된다.

얼마 후, 갑자기 찾아와서 사형수가 한 명 늘었다며 빨리 세 개의 못을 구해달라는 로마 병사에게 내일까지 만들어가겠다고 하지만 병사는 사형집행이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그치자 벤허단은 오래전에 로마 총독부에 납품하려고 견본으로 만들어 두었던 세 개의 못을 찾아다 준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구경하러 간 벤허단은 충격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매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청년 예수였던 것.

피 흘리며 죽어가는 청년 예수를 바라본 벤허단은 자신이 죄임 입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1999년 마흔의 고백

일산성전 등 지교회 순회공연

시놉시스

성가대를 지휘하는 한 남성. 부활절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소녀가 부활절을 진심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빈 껌데기의 자신을 보게 된다.

빈 껌데기 자신을 본 이 남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만 음성을 듣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바쁜 생활 속에 잊고 지냈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며,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1999년 어느 여인의 증언

일산성전 등 지교회 순회공연

시놉시스

자신도 죄인이지만 자신을 정죄하는 군중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나를 판단할 수 있냐 하며 증오의 눈길을 보내는 간음한 여인. 자신도 처음에는 간음이 죄임을 인지했지만 점점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했지만 어느 순간 간음이라는 죄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느덧 군중들의 손에 이끌려 광장 중앙에 쓰러진 간음한 여인. 이때 바리새인들이 청년 예수를 향해 어떤 벌을 내리겠냐며 재촉하는 소리를 들은 간음한 여인은 '이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고 체념하는 순간. 청년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려 쳐라'라는 말에 모든 군중이 사라져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청년 예수도 간음한 여인에게 자신도 정죄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말을 듣고 죽음에서 탈출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간음의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1998년 닳을 올려라

광림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성극

시놉시스

전쟁의 상흔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지쳐 갔다.

배고픔, 추위... 그리고 불신.

그 속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며 사랑을 실천해가고 세월이 흘러 전쟁의 상처도 잊혀지고, 모두들 제 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 그리고 온유한 '아', 신앙의 경험을 일찍이 해보았지만 잠시 하나님 을 잊었던 '가', 거친 성격의 '나' 의리의 사나이 '다', 주정뱅이 게으름꾼 '마', 출썩대지만 본성은 선한 '나', 남편을 잃고 억척같이 살아온 '닥', 그리고 조용한 성격의 '자', 묵묵히 밥을 해대는 '바' 그러나 이들은 늘 갈급하다. 무언지 모를 것에 대하여 항상 빈 가슴들 뿐이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뿐, 삶의 우선순위는 뒤죽박죽이다.

전도는 믿는 이들의 의무라는 깨달음이 '사' 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반대와 찬성의 밀고 당기는 논쟁 끝에 결국 이들은 배를 만들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위기투합하지만... 내부분열, 주변 사람들의 훼방, 그리고 거친 폭풍들이 이들에게 난제로 그러나 오히려 시련은 곧 올 복된 은혜들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땃! 배의 땃이 올려졌다!

이들은 드디어 비전을 품었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대사로써 서게 된 것 이들은 부족했고, 어리석음을 딱지덕지 붙이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감과 은혜에 빛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린 배는 땃을 올린 채, 지금 그 동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1년 365일, 선물을 위한 보물창고



전문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다양한 포장 스타일로 선물의 가치를 높이세요

기업체 VIP 선물 및 결혼 예단 스페셜 주문 제작

Gift Wrapping | Paper Bag | Goody Bag | Cards & Sticker | Special Item

인스타그램 [instagram.com/thegiftbar_official](https://www.instagram.com/thegiftbar_official)

신사역	신사역 300 학동사거리	압구정로데오역 LG전자	도산대로	청담사거리
노현역	삼성전자	더 청담 웨딩홀	SSG 푸드마켓 청담점 (피앤폴루스 지하 1층) ※ 무료 발레파킹 가능	7호선 청담역
7호선 강남구청역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42 피앤폴루스 SSG 푸드마켓 청담점 지하 1층			7호선 청담역



the gift bar

02-6947-1230